

블라인드 채용 역행하는 與野... 지방우대에 수도권 역차별

공기업 신입절반 지방대 할당 검토

21대 국회 지역인재 확대법 줄이어 인공공 사태 공정성 논란 재점화 수도권 대학 역차별 문제해소 관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절반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이지만, '인천국제공항(인공공) 사태'에서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이 되풀이되는 조짐이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은 그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로 이미 뽑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임기 말까지 30%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20% 정도를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체의 50%가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진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방대 졸업자의 공공기관 취업 문턱이 높아 지역인재 육성이 어렵다는 비판에서 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작됐다.

실제 문제인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지방대 출신) 채용은 증가세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369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만 1922명 수준이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 1만 9720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할당 제도까지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은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이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공공기관 지역인재 확대를 핵심으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5건 이상 발의됐다.

핵심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보다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분의 1로 높이고 채용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인

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법안에 채용 비율을 35%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지난 6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야당도 가세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현행 30%의 지방대 채용 할당 의무를 50%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해당 지역에 있는 초중고교를 다니고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는 현행 방식은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전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채용 할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지역별 대학 졸업자 수 차이로 인한 우수인재 확보 애로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반발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에 대한 역차

별 문제 해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력과 관계없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대 50% 할당' 정책에 대해 "불공정 채용"이라고 일갈했다. 하 의원은 "이는 능력과 실력 대신 불공정 채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은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 받게 된다. 국가가 차별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공무원·공기업 등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 이번 정책이 지방대 출신 학생을 되려 우대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향이 청주인 서울지역 한 대학 학생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지원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지방대학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먼저"면서 "웬만한 지방대 학생보다 지역에서 더 오래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 '인서울' 대학에 합격했는데 지방대 출신이 아닌 이유로 지역인재가 되지 못하는 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취업재수생 70% "작년보다 취업 더 어려워"

잡코리아 구직활동체감 설문

어려워진 이유에 기업채용 감소 1위

취업재수생 10명중 7명이 '작년보다 올해 취업이 더 어려웠다'고 답했다.

잡코리아가 취업재수생 1449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체감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작년보다 더 어려웠다'는 응답자가 74.0%로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년과 비슷했다'는 취업재수생이 23.7%로 조사됐고, '작년보다 더 쉬웠다'는 취업재수생은 2.3%로 극소수에 그쳤다.

취업재수생들은 올해 구직활동이 어려웠던 이유 1위로 '기업의 채용 감소'

를 꼽았다.

조사결과 '기업의 채용이 적어서 어려웠다'고 답한 취업재수생이 58.2% (응답률)로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어 '경력직 채용공고가 많아서 어려웠다'고 답한 취업재수생이 38.0%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직무 자격증/어학점수 등 지원 자격제한을 두는 기업이 많아서 (20.7%) ▲정규직 전환 없는 체형형 인턴을 모집하는 기업이 많아서 (16.4%) 순으로 올해 취업이 어려웠다는 답변이 있었다.

반면 취업재수생을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점으로는, '직무 경

험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았던 것'을 꼽았다. '올해 구직활동을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된 점은 무엇인지' 꼽아보게 한 결과 1위는 '직무 경험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았던 것'으로 응답률 1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채용공고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았던 것 (14.3%)'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신입직과 경력직을 함께 모집하는 기업이 많아져서(13.8%) ▲채용 직무별로 요구하는 역량이 명확해진 것 (12.7%) 순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됐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현진 기자

한국외대 미디어외교 현황·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소 산하 '미디어외교센터(H.CMD)' (NRF인문사회중점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미디어외교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김유경 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회식에서는 한국공공외교학회 초대 학회장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축사를 한다.

이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진 국회의원이 '미래지향적 한국 공공외교의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는다.

발표 세션에서는 '공공외교에서의 미디어외교의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한국의 미디어외교 현황과 과제 세미나 안내 /한국외대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가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과 과제: 미디어외교의 가능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Ian Manor 박사가 '외교의 디지털화: 분절된 패러다임의 명확화',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가 '21세기 미디어외교의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재선정

2024년까지 사업 연장 추진

건국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IPP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2차 사업'에 재선정 돼 오는 2024년까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과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을 연장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IPP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은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현장에서 장기간(4개월~6개월) 이수하도록 하는 실습 제도다.



건국대 전경

현장실습 모델인 'IPP형 일학습병행'은 대학과 기업간 고용 미스매칭에 따른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산학협력 교육훈련제도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과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을 결합한 제도이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

5일 아시아경제 포럼 개최

인천대는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이 오는 5일과 6일 인천 세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조물확실성 시대의 동북아와 아시아공동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2009년부터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을 출범해 그간 개최해 왔다.

/이현진 기자



국민대, 비대면 수업 개선 예산 확보

교육부·한국연구재단서 3.97억

국민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3.97억을 지원받겠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학생 감소와 방역 비용, 특별장학금 편성 등으로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이 교육 및 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전키 위해 237개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



국민대 전경

국민대는 이 재원을 비대면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원격강의 서버 등 기자재 구입과 강의실 교육환경개선 및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